2005년도 포천문화원 정기총회

포천문화원이 지난 24일 2005년도 정기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이만구 문화원장이 지난해의 사업 성과 및 앞으로 추진할 주요 사업 등 문화원 운영전반에 대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억5천7백만원 예산승인

포천문화원 (원장 이만구)은 지난 24일 유림회관에서 고문 및 자문위원, 임원과 회원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지난해 감사보고와 사업실적 보고,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 2005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및 세입·세출예산 승인, 기타 토의사항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총회에서 포천문화원은 2005년도 예산을 지난해보다 1억4백만원이 증액된 2억5천7백만원으로 편성했고 ▶문화학교 지속운영을 비롯 향토문화연구사업 추진, 향토문화재 탐방 ▶반월문화제의 종합문화 행사 개최 ▶포천문화, 문화사랑 책자발간▶전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는 포천메나리 적극 육성지원 ▶문화원 원사 수선 등의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또한 특수시책으로 ▶교류협력사업 추진 ▶문화교양강좌 ▶좋은 책 읽기운동 전개 등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 및 선진문화의식제고 등 한 단계 발전하는 포천문화원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기타 토의에서 회원들은 지역 고유의 문화정체성 확립 및 누구나 동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친근한 문화원, 박력 있고 살아 움직이는 문화원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 포천문화원의 발전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자유기고

善惡과 新舊의 변주곡 '빈상설'

홍을표
이해조문학회장

양반 신분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세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개화 양반의 딸이나 그 남편인 수구 양반의 자식이나 모두 기생출신의 첩과 그 몸종에게 당하는 꼴이 그대로 들어나 있다. 수구 양반의 자식인 서정길은 자기 또래의 종인 유거복이만도 못한 눈뜬 장님이다.뚜쟁이의 잔꾀에 의지하여 첩의 욕망과 몸종의 기지에 모두 놀아난다. 이러니 개화 양반의 딸은 그대로 망할 판이다.

그런데 개화 양반의 딸과 쌍둥이인 아들 이승학의 개명된 판단과 모사는 이러한 답답함을 해결하며 이야기는 전개된다. 그리고 이승학은 누이를 팔려갈 위기로부터 구하기 위해 지혜를 발휘하여 누이로 변장하여 일을 꾸미던 중 우연히 만난 옥희와 몸을 섞게 되고 그녀에게 진실을 토설한다. 제주에 귀양간 이승지 친견을 위해 남장으로 배를 타다가 배가 난파되어 생사를 모르던 이난옥을 찾던 중 인천부두노동자가 된 돌이의 도움으로 이승학은 누이를 만난다. 두 쌍둥이 남매는 극적으로 해후하고 승학은 개화 양반인 부모들의 자발적 동의까지 얻어 보란 듯이 옥희와의 언약을 지키며 결혼을 하게 되고 이난옥은 남편 서정길의 상해 유학 서신을 받고 기뻐한다.

작가의 개화 사상은 이승학을 통하여 그의 연애로서 실천되고 있으며 그것이 공허하지 않으은 것은 자신의 쌍둥이 누이를 이 위기로부터 구출하는 기지와 담력과 수완에선 나타난다. 그리고 고공이다가 자유노동자로 전락한 돌이의 존재가 눈에 뜨인다. 그는 첩의 몸종인 금분이에 매수되어 사체유기를 하나 이승학과의 만남으로 자신의 범죄 행위를 고변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하게 되고 두 가해자를 체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는 이 작품에서 수구 양반의 몰락한 천한 신분들의 생존을 위한 반란을 목도한다. 종들은 자신들의 신분적 제약 속에서도 최대한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행동한다. 금분이, 유거복, 돌이, 놈이 등이 바로 그렇다. 각자가 하나의 재산과 같은 물건이 아니라 각자의 처지에서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라 일관되게 행위하는 인격체로 드러난다. 이승희의 역할은 이들과의 유기적인 대립 혹은 협력의 관계를 설정하여 자신의 의도를 실천해 나간다. 그러므로 이승학의 동반자와 대립자는 보수 양반이 아니라 바로 이들이다. 작가가 보수 양반인 서정길을 징치하지 않고 상해로 공부하러 가는 것으로 설정한 것이 그것을 반영한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이난옥과 이승학이 쌍둥이 남매로 설정한 데 작가의 깊은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처첩간의 갈등이 기본 서사 구조인데 실제 이난옥은 일방적으로 당하는 피해자이요 소설 전개에서 방관자 역할을 하고 있다. 오히려 소설은 그의 쌍둥이 남동생인 이승학에 의하여 전개되어 간다. 쌍둥이는 서로 상대의 고통을 공유하는 것일까? 그 일심이체의 쌍둥이가 이 소설의 실마리를 푸는 열쇠가 아닐까? 처첩간의 갈등은 제도의 문제이고 이것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님을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남성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음을 쌍둥이 설정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주제상의 처첩 갈등인 이난옥과 평양집의 갈등은 표면상으로는 이승학-유거복-돌이 대 평양집-금분이-화순집의 대결로 나타나는 것이다.

눈여겨 볼 인물은 유거복과 돌이다. 유거복은 자신의 처인 금분이의 악행과는 달리 그의 악행에 의하여 당하는 이난옥을 위하여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제주 친견을 돕는다. 이 자의 행위의 동기는 서정길이 부용과 그의 모 화순댁이 이난옥을 황은율에게 팔아넘기려는 것을 알고 분개하여 이난옥을 돕고자 한 정의감에서 나온다. 서정길의 못난 것이 마치 자신의 탓이나 되는 것처럼 책임을 느끼는 사람이다. 돌이는 갑오경장 이후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자이나 돈을 받고 남의 집 일을 하는 고공 신분에서 자유노동자로 변신한 자이다. 이 자는 금분에게 돈으로 매수되어 복분이의 시체 유기를 하지만 이승학과의 만남으로 인하여 변심하여 자신의 행위를 다 고발하여 부용과 금분이를 옥에 넣는다. 그는 정신적으로는 근대적 각성이 없는 미몽이다. 아직도 묘자리의 발복을 신앙하며 지관으로 믿은 이승학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그에게 도움을 주지만 이것은 스스로의 이해를 추구해야 하는 자유 노동자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한 면이라고 할 수 있다.

옥희의 존재가 신기하다. 그는 외형상 피해자이지만 실제로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이승학의 사람됨을 알아보고 기지를 발휘하여 그를 탈출시킨다. 옥희의 의식은 이승학 만큼이나 근대적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승학도 옥희의 자신에 대한 진정성을 알고 서로의 언약을 지키게 된다. 비록 이승학의 권도로 몸을 빼앗겼으나 근대적인 사랑은 이난옥의 서정길에 대한 봉건적인 미련보다 고귀하고 빛난다. 그래서 처첩 갈등과 더불어 자유 연애와 새로운 결혼 제도를 제기함으로써 갈등의 해결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이 소설의 또 하나의 축이 된다.

평양집, 여종 금분이와 이승학의 대립각에서 양반 부부인 서정길과 이난옥은 액스트러이다.서정길은 나중에 상해로 가 공부하는 것으로 설정한 것도 서정길이 특별히 악인이 아니라 제도의 희생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즉 처첩제도의 모순에서 나온 문제이지 서정길의 인간됨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으로도 이해된다. 집안에 한 남자에 부인이 둘이면 싸움이 나고 가정이 파탄되는 것은 피할 도리가 없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축첩 제도가 있는 한 처첩간의 암투와 갈등은 필연이다. 거기에다가 재산을 노리는 개입자가 있으며 그 싸움은 치열성을 더해 결국 파국으로 가게 마련이다. 여기서 수구 양반의 자제인 서정길은 첩에의해 완전히 정보가 통제된 인물이다. 이것은 어쩌면 수구 양반들의 시대관을 역설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들이 그렇게 시대의 변화에 대하여 몽매하니 집안은 물론 나라 꼴이 잘 될리 없다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서정길은 표면상 개화인 처럼 보인다. 기실 구제도와 유착된 관계속에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말아먹고 신문물을 오직 사치와 소비의 행태로 접수하는 모습이다. 개화 자체가 자본주의의 소비시장으로 흡수되는 지름길이었으니 수구 양반들의 재산도 소비로 탕진되어 패가망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개화장정(章程)에는 세전비(世傳婢)로 부리는 법을 금한다니까 법소를 차릴 수도 없고 하인성청법도 없어졌으니 사다듬이나 할 수가 있나"라며 개화로 인한 기득권 상실에는 강한 거부감을 갖는다. 그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상해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러한 양반들의 개과천선에 대하여 아주 미련을 버리지 않은 작가의 계몽주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인터뷰 ○ 이희용 (사)한국연극협회 포천시지부장

포천의 역사적 인물 형상화 작업 추진

"포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포천사람" 강조

이 희 용
(사)한국연극협회 포천시지부장

지난 96년도에 창립한 이후 꾸준히 지역연극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한국연극협회 포천시지부를 찾아 이희용(40.사진)지부장으로부터 2005년 새해 설계는 물론 최근 포천시 예술계의 화두가 있는 각종 사안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이희용 지부장은 지난 2001년 2월10일 지부장으로 취임이래 역동적인 연극활동을 통해 포천시 연극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이뤄놓은 성과에 대해 이 지부장은 ▶전국연극제에 작품을 출품하여 입상권에 진입▶포천문화원에서 개최하던 어린이연극제를 연극협회에서 맡아 개최▶대진대학교와 포천중문의과대학교 연극팀의 포천연극제 공식참여▶포천신문 등 지역매체를 이용해 연극을 시민들에게 알림▶청소년연극제 개최▶자원봉사단체로 연극협회를 가입시켜 장애인과 실향민들에게 무료공연▶연극활성화를 위한 기본시스템 구축▶포천시승격 기념 마당극,무대극 공연▶가산-내촌-소흘-포천등 지역 순회공연▶시립극단 구성의 토대구축▶포천출신 연극전공 학생 배출▶무용-국악-연극예술의 조화 시도▶포천출신 인물을 소재로 한 작품준비▶연극을 통한 NGO 활동▶포천연극제를 경기북부의 특색있는 연극제로 발전시킴▶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를 포천에서 개최하여 포천시의 위상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런 성과를 이루는 과정에서 겪었던 애로상에 대해서 이 지부장은 "연극예술 이해의 부족으로 연극을 알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때로는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무지는 걸림돌이 되었으며 단원들의 인화와 연습공간의 부재,예산의 부족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시한 다양한 효과를 거양한 것은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즐거움과 포천신문을 통한 연극의 홍보 및 소개 등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연극에 대해 관심을 보일 수 있게 됐다"며 "어린이들의 공연수준이 해마다 높아지는 것을 볼 때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고 이러한 점들이 포천의 연극을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 지부장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포천연극제를 포천자유종연극제로 발전시미고 이해조의 작품을 연극화하고 오성과 한음, 면암 최익현, 포천메나리 등을 형상화 시키는 작업과 대학극과 지역극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지역주민과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순수한 예술로서의 연극을 지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지부장은 "포천시 예술관련 책임자들과 포천시의회 및 문화예술 관련공무원의 도움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며 "지역예술인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설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이 지부장은 시민들에게는 "삶의 질을 스스로 높이려면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공연과 전시등 발표회에 참가함으로써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 간접적인 체험을 많이 해야만 훌륭한 시민의식을 다지는데 커다란 바탕이 될 수 있으니 능동적인 관람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천반월아트홀 운영과 관련하여 이 지부장은 "지역예술가와 함께 가고자하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해조문학회 회원으로서 입장에 대해 이 지부장은 "이해조라는 분이 포천분이라는 것을 안 것은 고등학교때부터이며 국문학을 전공하면서 이해조의 작품위상과 문학비등의 건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포천신문을 통해 강조했다"며 "이것이 계기가 되어 뜻있는 분들과 함께 이해조문학회를 발족했으며 앞으로 춘원 이광수, 김유정, 다산 이효석과 같은 훌륭한 문화적 자긍심으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로 재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삶을 배우의 형상화된 몸짓을 통해서 무대 위에 재현하여 보이는 협동적인 예술이 연극임을 강조하는 이 지부장은 "포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포천사람"이라며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포천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서로 상부상조하여 살아가는 마음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모습"임을 강조했다.

현재 대진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에서 연출을 전공하고 있는 이 지부장은 시립극단 창단에 대해 "박윤국 포천시장이 출마공약으로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이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대학원을 졸업하면 "대학생들에게 이 지역의 연극을 제대로 교육하고 싶다"고 밝히는 이 지부장은 앞으로 포천연극의 특색화 작업에 역점을 두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춘계 학술발표대회로 市 문화발전 가능성 확인

이해조문학회 제2차 정기회의에서 사업계획

이해조문학회(회장 홍을표)는 지난 25일 오후4시30분 대진대학교 대학원장실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올 상반기중 2005년 춘계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이해조' 브랜드와 포천문화발전의 관련성 및 가능성을 모색키로 논의했다.

아울러 이해조 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소개하고 이해조 선생의 문학과 그 문학사적 의의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학술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이해조문학회가 중심이 되어 포천시 유력인사들을 포함한 행사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학술대회를 통해 이해조문학상 제정 서명운동과 포천 출신 출향인사들의 참여를 위해 고 이우정 여사 추모회, 이부영 전의장, 이한동 전 국무총리 등 포천을 대표하는 인물과의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일시와 장소는 반월아트홀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것은 행사추진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관내 대진대학교와 포천중문의과대학교, 경복대학 등 3개 대학의 인적, 학술적 자원을 활용키로 해 주목을 끌고 있으며 학술대회의 주요 발표내용은 ▶이해조 선생의 생애와 사상▶이해조 선생의 문학과 그 의의▶이해조와 포천 등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제2차 정기회의에서는 이해조의 작품 '빈상설'(눈보다 흰 귀밑머리)에 대한 작품분석을 홍을표 이해조문학회장이 발제하여 깊은 토론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24)

포천의 의병과 독립군

1.「우리조선 형제들아 의병하러 나가세/ 의병하여 나라찾세 왜놈들은 강성한데/ 나라없이 어이살며 어느곳에 산단 말인가/ 원수왜놈 몰아내어 우리나라 지켜보세」

2.「우리임금 세도없이 왜놈들 강성하니/ 빨리나와 의병하고 의병하여 애국하세/ 우리들도 뭉쳐지면 무슨일을 못할소냐/ 의병하다 죽는 것은 떳떳하게 죽음이라」

* 조선나라 청년들아 빨리나와 의병하세

〈의병 창의가(1)〉에서 1절

「배낭지고 총대메고 고개고개 넘어가니/ 아니나는 심화가 절로난다 절로난다/ 머리깍고 사포쓰고 받들어 총 한는 소리/ 천지가 드높고 바다가 끓고 끓네/ 천세 천세 천천세 만세 만세 만만세/ 대황제 폐하 만세 만만세」

*〈의병노래(2)〉에서

의병의 노래 두가지를 소개하였다.

이 외에도 〈안사람 의병의 노래〉가 2개나 있고 〈의병경중가〉 3절 등이 전해오며 〈광복군 노래〉도 있다. 또 〈민족의 약동〉등이 전해 온다.

나라 잃은 슬픔을 딛고 뜨거운 애국심으로 또 피로 뭉쳤던 의병이나 독립군이나 광복군들이었기에 이 노래를 듣노라면 가슴 뜨거워 몸을 금할 길이 없다.

내고향 포천 출신의 의병은 너무나 잘 알려진 최초의 의병의 총 지휘부셨으며 대마도에서 순국하신 면암 최익현 선생이시며 님의 둘째 아드님 최영학의 아들 최면식(1891년 1월 17일~1943년 7월 3일)선생께서도 독립군 군자금 모금책이자 의무원이셨다. 박복인(朴福仁) 의 병은 군량미 수집책으로 병참병이셨으며 윤유길(尹有吉) 의병도 독립군 군자금 모금책이셨으며, 이주호(李周鎬) 의병도 이민식(李敏軾) 의병도 군자금 모금책으로 활동하셨다. 조황(趙晃) 선생도 의열단원으로 중국 길림성 김원봉 단장 밑에서 국내 의병활동으로 파괴공작을 도모하셨으며, 김영관(金榮觀) 의병은 일본 왜군으로 징집되어 1944년 10월 중국 절강성 의오현에 주둔할 때 동지인 박승유, 신의철, 이의화 등과 함께 왜군을 탈출 임시정부 광복군 총사령부의 정보처에 편입되었다. 1944년 봄, 중국 유격대와 합동작전으로 정보·선전 공작을 전개하는 광복군 정규군 제3분처 소속이었다. 이렇듯 내 고향 포천에는 독립군, 의병 활동을 전개한 분들이 있다.

이들이 계시기에 오늘 날 우리는 행복한 민주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행방 후, 국방경비대(국군 창설 이전의 국군의 모태) 장병들이 부르던 군가를 부르며 의병과 독립군, 광복군의 애국심을 되새기고는 한다.

「무명지 깨물어서 붉은피를 흘려서/ 태극기 걸어 놓고 천세만세 부르자/ 한글자 쓰는사야 두글자 쓰는사야—/ 나라의 병정되기 소원합니다—」

혈서를 쓰면서 애국을 다짐하며 독립군과 의병들은 싸웠던 것이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봄향기파는 주점

김영송
1957년 전북출생
회사원

봄님이 지금 어디쯤에서 오고 있나요
길가에는 아직도 차가운 눈나비가
이른봄의 온기에 맞아 상처투성이로
흐터져 잔재들이 나뒹글고 있읍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눈사람이 봄의새싹들이
나오려하는 길목을 지키고 우뚝서 있으며
동장군들 아직은 우리들세상이라고
짧고 긴 고드름 옆에차고 기세 등등하게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고 있읍니다

민들레꽃 아기새싹들 라일락꽃집에서
봄노래 부르며 즐겁게 뛰여놀다가
장미꽃의 향기를 따라 세상밖으로
나오려나 움찍하며 무서움과 추위에
벌벌떨고 있네요

봄향기주점에서 봄내음에 취하여
우리새싹들 이제오나 저제오나 기다리던
봄꽃엄마들 시름에 젖여있는데
봄의천사들이 엄마마음을 알았는지
저마다의 향긋한향기를 푸른하늘을 향하여
내품고 태양의 따스한빛이
봄볕의 온화한온기로 변하여
눈사람과 동장군을 녹이니
기세등등하던 겨울의 수하들이 하나둘씩
사라져 갑니다